

“광주공항 소음지도 만들어 피해보상 활용을”

광주시의회 시정질문

광주시의회는 20일 제238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광주시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냈었다.

이날 시정질문에는 문태환(광산 2)·김민중(광산 4)·전진숙(북구 4) 의원이 나서 광주공항 인근 소음 피해 실태 파악, 물 재이용 관리 계획 부재에 따른 예산 낭비, 임동지역 도심재생방안 소홀에 대해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광주공항 소음 지도 제작”=문태환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공항 인근 도심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광주시가 피해주민 실태조사 및 대정부 보상 요구를 위해 항공소음지도 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광주시는 관련법에 따라 소음지도의 작성대상이 기차·자동차·전차·도로 및 철도 등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기 및 선박은 교통기관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항공소음을 배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라 항공 소음을 매일 측정지역별로 구체적인 항공소음 데이터가 산출되고 있는 만큼 이 데이터도 소음지도에 포함시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물 재이용 전국 최하위 연 33억 원세 낭비 임동 도심재생방안 구체적 계획 수립해야



문태환 시의원



김민중 시의원



전진숙 시의원

이어서 “서울의 경우 주민피해 실태조사와 피해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항공소음지도도 별도로 제작할 계획인데 반해 광주시는 50여년간 항공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어떤 지구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될 경우 소음지도와는 별도로 항공기 소음지도를 작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물 관리 못해 연 33억 낭비=김민중 의원은

“광주시의 물 재이용 관리계획 부재로 인해 연간 33억 원의 물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환경부 하수통계에 따르면 광주시의 연간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은 7.8%에 그쳐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2위에 그쳤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수도 처리용량은 1일 2244t으로 제2수도 다음인 16위, 빗물이용시설 저류조 용량은 994t으로 12위(7대특광역시 중 6위)로 물의 재이용과 관련해 전국에서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우리는 물 부족 도시로 미래 물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서는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비롯한 공원 살수용수, 인공호수 유지용수, 지하철 차량기지 세척수 등 그 사용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광주전 유지용수를 늘

려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을 높이고자 했으나 광주전 수질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주암원수를 공급하면서 하수처리수의 하천유지용수 공급 감소로 재이용률이 줄어들게 됐다”고 해명했다.

◇“임동 도심재생방안 수립”=전진숙 의원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가 위치한 임동지역에 도심재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광주시의 무관심으로 임동지역의 주차 전쟁과 교통 혼잡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야구장을 만드는 데만 몰두해 주변의 인프라 구축과 중장기적 지역상생 발전에 대한 어떤 로드맵도 만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대안으로 ‘야구박물관 건립 재추진 및 야구의 거리 활성화’, ‘임신방직·전남방직과 연계한 광주 방직역사 현장의 보존과 활용’, ‘대원시장 청년창업공간 및 게스트하우스 이용’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전 의원이 제시한 도시재생 사업들의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여, 2016년도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무등산보리밥 지구 우수외식업지구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4억 지원

정부가 광주를 대표하는 먹거리 명소인 동구 지산유원지와 증심사 일대 무등산보리밥 지구를 우수외식업 지구로 선정했다.

광주시는 2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무등산보리밥지구를 2015년 우수외식업 지구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전남에서는 강진군 ‘오감만족 한정식 맛집’이 지정되는 등 전국적으로 총 5곳이 신규 우수외식업 지구로 선정됐다.

광주의 무등산보리밥은 한정식과 오리탕, 김치, 송정떡갈비와 함께 ‘광주오미’(光州五味)로 불릴 정도로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우수외식업지구는 지역별로 특색 있고 수준 높은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산업진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을 지정해 2년에 걸쳐 국비 2억원, 지방비 2억원 등 총사업비 4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우수외식지구 지정을 계기로 외식 종사자 서비스교육 강화, 경영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을 확대해 고품격 외식지구로 육성해 나가는 계획이다.

남태송 광주시 식품산업담당관은 “외지에서 국립공원 무등산을 찾아가는 탐방객에게 맛갈스런 보리밥 한상을 대접해 드리고, 맛의 교장 광주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계기로 삼겠다”면서 “앞으로 광주오미가 밀집된 지역들이 우수외식지구로 추가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 AI 방역조치 해제 ‘종식’까지는 상당기일 걸려

전남도는 20일 “지난 3월 5일 구례에서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살처분과 소독조치를 완료하고, 오리 축사의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까지 경기·전북에서 AI가 발생하고 있어 ‘AI 종식’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걸릴 전망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4일 영암지역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재발생한 이후 울돌머 무안·나주·구례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다. 무안은 3월 2일, 나주지역은 3월 27일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구례지역은 3월 5일 고병원성 AI가 마지막으로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어 이동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해 이를 해제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방역지역에 대한 가금류 이동제한이 해제됐다.

그동안 전남도는 시·군과 축산위생사업소 등과 함께 26개의 AI 상황실을 24시간 유지하며, 닭·오리 검사 후 이동승인서 발급, 오리 폐사체 일제 검사, 최대 131개소의 이동통제조소 운영, 살처분 보상금 등에 500여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도 도 예비비 1억원을 들여 발생농가에 남아 있을지 모르는 잔존 바이러스를 사멸시키기 위해 훈증소독제를 공급했다.

유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아름다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회원들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1시군 1숲 돌보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제5회 새마을의 날’ 기념 및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참여 선포식’이 20일 오전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렸다. 이날엔 전남지사, 황금영 새마을회 전남지회장, 명현관 도의회 의장, 22개 시군 회장단 및 회원들이 숲 속의 전남 만들기 1시군 1숲 돌보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광주여성재단 장혜숙 대표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자료제출 거부에 시의회 반발

사전내정설 논란을 빚은 광주여성재단 장혜숙(68) 대표이사 후보자(선임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됐다.

하지만 광주시의회가 시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등 반발하고 있어 윤장현 시장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광주시의회는 20일 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장혜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보고서를 시로 송부했다. 인사청문 특위는 보고서에 일에 대한 열정, 광주YWCA 등 경력, 지역 여성계와의 무난한 소통 등은 장점으로, 사전내정설 의혹에 대한 해소 실패, 재단을 이끌 구체적 대안 미비 등은 단점으로 적시했다. 또 사전내정설 의혹 해소를 위해 특위에서 요구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재점표 등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특히 인사특위 서미정 위원장은 시의회 보

고에서 “의회의 자료 요구권을 묵살한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을 부정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지속하면 조례개정이 나 과태료 부과, 행정심판 청구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청문회 진행의 핵심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과정 등의 자료를 내놓지 않을 경우 청문회 자체가 무력화 될 수도 있는데다 무용론까지 나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배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가 송부된 만큼 윤 시장이 장씨 임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최권원기자 cki@kwangju.co.kr>

문인 광주시 행정부시장 대통령 재가

문인(57)행정자치부 정부청사관리소장이 이달 내에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20일 “이날 행정자치부로부터 문인 정부청사관리소장을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부는 조만간 자체 인사를 통해 문인 정부청사관리소장을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발령낼 계획이다.

광주시는 윤장현 시장이 22일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홍보 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만큼 그 전에 부임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인사권자인 정중섭 행정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동행해 공석이라는 이유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행정부는 장관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27일 이후 이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부측에서 장관이 해외에서 돌아오는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4월 내에는 (문인 소장이) 광주시 행정부시장으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도목직인 신임 문 부시장은 탁월한 행정능력과 리더십으로 행정직이 독점해 오던 자치행정국장을 최초로 맡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광주일고와 한양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술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이후 광주 북구 부구청장과 시의회 사무처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최권원기자 lucky@kwangju.co.kr>



“아름다운 자연과 우주로 떠나는 신나는 탐험! 고흥우주항공축제로 오세요!”

2015 고흥 우주항공축제

GO~GO~ 상상 SPACE GO~

보GO! 즐GO! 체험GO! 공유GO! 맞GO!

2015. 4. 24(금) - 4. 26(일) 3일간

주행사장: 박지성 공설운동장
보조주행사장: 나로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고흥우주천문과학관

구분	프로그램	주요내용
대표 프로그램	• 미디어 파사드 대북공연 • 샌드아트 공연 • 우주센터 발사기지 견학	• 미디어와 과학이 결합된 신개념 포퍼먼스 • 샌드아트 공연 • 축제기간중 우주센터 견학(사전 예약제)
주요프로그램	• 주행사장 (박지성공설운동장/고흥읍)	• 별자리관측 등 35종
	• 제2행사장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몽래면)	• 3D입체상영관, 4D입체상영관 • 상설전시·체험 : 90종
	• 제3행사장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 /동일면)	• SOS(3차원 대화 기하화 시스템)·천체투영관 • 상설전시·체험 : 12종
	• 제4행사장 (고흥우주천문과학관/도양읍)	• 천체투영실, 주·보조관측실 (달, 목성, 별자리 관측) • 전시 20종, 천체관련민들기 체험
기타 주제 프로그램	• 물로켓발사 경진대회 • 우주항공 스텔프래리 • 어린이 창작 사생대회 • 천체관측 프로그램 • 스페이스인터스텔라 • 스페이스가든	• 초·중·고 학생들의 물로켓 발사 경진대회 • 고흥 우주항공 체험시설 견학이벤트 • 우주 이미지 그리기 대회 • 첨단장비로 축제장에서 주야간 관측 • 영화 인터스텔라 연출 • 우주정원 연출

주최: 고흥군 주관: 고흥군우주항공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고흥시, 고흥읍, 고흥우주천문과학관
참여기관: 나로우주센터, 나로우주과학관, 국립고흥청소년우주체험센터